

李朝墓誌 數例(其三)

崔夢龍

筆者는 지금까지 李朝墓誌의 多樣한 型式 및 內容에 대해 상당한 關心을 갖고, 그에 대한 調査의 結果로서 都合 18例의 李朝墓誌에 대해 그 型式과 銘文 및 그 銘文이 밝히는 被葬者에 關하여 簡略하나마 紹介해둔 바 있다①.

이제 여기에 資料로 紹介하고자 하는 李朝墓誌 數例(其三)는 그 後 새로이 調査된 것들로서, 後日 이러한 資料들이 좀더 모이는대로 編年에 立脚한 墓誌의 型式分類를 試圖해 보고자 하며, 이러한 새로운 例의 紹介를 型式分類를 위한 作業의 一環으로 삼고자 하는 바이다.

여기에 紹介하고자 하는 墓誌는 모두 10例로 그들은 다음과 같다.

- (1) 閔天瑞墓誌(長方形, 鐵畫白磁; 一六六八年, 顯宗 九年)
- (2) 鄭仕墓誌(長方形, 青華白磁; 一八·一九世紀頃)
- (3) 鄭昇墓誌(長方形, 青華白磁; 一八·一九世紀頃)
- (4) 權大臨墓誌(長方形, 鐵畫白磁; 一七六四年, 英祖 四〇年)
- (5) 朴成棟墓誌(長方形, 鐵畫白磁; 一五三八年, 中宗 三三年)
- (6) 金汝鈞墓誌(長方形, 青華白磁; 一七五六年, 英祖 三二年)
- (7) 洪大胤墓誌(圓筒形, 鐵畫白磁; 一七八八年, 正祖 一二年)
- (8) 貞敬夫人恩津宋氏墓誌(長方形, 粘板岩; 一八三四年, 純祖 三四年)
- (9) 德水李氏墓誌(長方形, 青華白磁; 一八五二年, 哲宗 三年)
- (10) 熙豐の子墓誌(長方形, 烏石; 一八六七年, 高宗 四年)

一、閔天瑞墓誌

全南大學校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이 李朝 墓誌는 一枚의 長方形

鐵畫白磁墓誌로서, 크기는 가로 一一·六cm, 세로 一七·六cm, 두께 三cm이다. (圖一)

이 墓誌의 主人公 閔天瑞는 字가 應文이며, 本貫이 驪興인데, 그의 生전에 官職에는 오르지 않았다. 그의 曾祖父 閔悟는 死後에 領議政行 檢閱②에 追贈되었고, 祖父 閔孝舜은 高山縣監을 지냈으며, 父 閔璋은 光州金氏 百鈞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벼슬은 없었다. 閔天瑞는 一五二二년 明 嘉靖 元年, 李朝 中宗 一七年에 出生하여, 一五九八년(明 萬曆 二六年, 李朝 宣朝 三二年) 享年 七七才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이 閔天瑞의 墓誌는 그의 從孫 閔汝老에 의해 쓰여진 것인데, 閔天瑞는 아들이 없어 그의 나이 七三才 때에 閔汝老의 아버지를 養子로 入養시켜 그의 代를 잇도록 하였다. 閔汝老가 이 墓誌를 記錄한 것은 그가 綾州牧使로 있던 一六六八년(戊申年, 李朝 顯宗 九年)③이 되겠다. 이 墓誌의 全文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玄第一 二十二

有明朝鮮學生 閔公墓誌銘

公姓 閔諱 天瑞字 應文驪興人 曾祖 考諱 悟 贈 領議政行 檢閱 祖 考諱 孝舜 高山縣監 考諱 璋 學生 妣 光州金氏 學生 百鈞之女 廣州李進士諱 址之外孫也 生於 嘉靖 元年 中 廟 十七年 壬午 八月 十三日 卒於 萬曆 二十六年 宣 廟 三十一年 戊戌 正月 初四日 享年 七十七 葬于 鎮岑伯耶洞 負丙之山 與 孺人墓 同北界 穴而外 祖妣 廣州李氏 墓在其上 六步 許室 忠州朴氏 學生 成權之女 生於 宣德十年

玄第二 二十二

中 廟 十六年 辛巳 十二月 十四日 卒於 萬曆 二十一年 宣 廟 二十六年 癸巳 二月初二日 享年 七十三 無子 取先君爲 侍養焉 戊申 四月 日 從孫 通訓 大夫 綾州牧使 閔汝老 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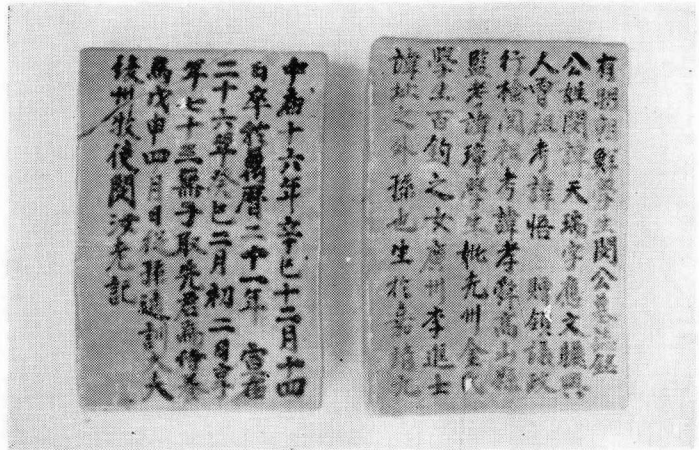


圖 1. 閔天瑞 墓誌

二、鄭仕 및 鄭昇 墓誌

鄭仕의 墓誌는 全南大學校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것으로 二枚의 長方形 靑華白磁 墓誌인데 그 크기는 가로 一〇·九 cm, 세로 一六 cm, 두께 二·五 cm 이다. (圖 1)

墓誌의 主人公 鄭仕는 號가 遜華이며, 그의 本貫은 東萊이다. 鄭仕는 鄭可宗의 九代孫인 鄭世規(一五八三~一六六一)의 ④曾孫(一一)代으로, 簪纓이나 相承(一一代)의 아들로 여겨지는 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墓誌가 缺如되어 누구의 子孫인 지 確實치 않다. 이 墓

誌는 一六六一~一〇代 暹·嵩·昇~一一代 簪纓·相承~一二代 仕~一三代 允喬……一五代 志學……一九代 性模
따라서 이 墓誌는 一五代孫 志學이 쓴 것으로 보아 前者 鄭仕의 墓誌보다 製作年代가 좀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墓誌銘 全文은 아래와 같다.

鄭仕墓誌

公姓鄭諱仕號遜華系出東萊高祖諱可宗禮曹判書 考諱守弘官吏曹判書大司憲妣貞夫人玄風郭氏判官恒女忠州魚氏參議仲連女公於瑞宗朝中進士物論甚重將有人展之望及 瑞宗遜伍遂隱節不仕自號遜華其後公議齊發追配于窟川祠墓在金……缺……九世孫吏曹判書世規按密本道時立名下有齋閣公生三男 長曰暹文科吏曹判書 次曰嵩無後 次曰昇延德宮錄事 贈工曹參議 追贈吏曹判書蓋公之子孫簪纓相承散居京鄕其麗數千……缺……
甲子十有日十九代孫性謨奉記誌石

鄭昇墓誌

公姓鄭諱昇系出東萊 考諱網官都指揮使大護軍 妣貞夫人金堤趙氏大護軍歧祖之女 官至延德宮錄事 贈工曹參議 追贈吏曹判書 墓在金堤白石面興福寺前麓卯坐 前有冠石 十三世孫教官允喬撰銘 十五世孫志學書之……

三、權大臨墓誌(圖 3)

權大臨의 墓誌는 光州 東新中·高等學校 民俗室에 所藏되어 있는 것으로 모두 一〇枚의 長方形 鐵畫白磁 墓誌인데, 그 크기는 가로 一五·六 cm, 세로 一一·七 cm, 두께 一·九 cm 이다.

이 墓誌는 앞뒤로 백백이 기록하고 있으나 中間中間이 缺落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 順序나 意味가 통하지 않은 곳이 많으나, 權宜快(一五七九~一六四四)、環(一六〇四~一六六六)、德興(一六三六~一七一六)、

誌는 一九代孫인 性模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아 鄭仕가 歿한 年代보다 훨씬 늦은 一八·一九世紀頃으로 推定되며, 鄭仕는 國朝榜目에 들어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의 延德宮錄事인 鄭昇의 墓誌도 全南大學校 博物館 所藏으로 前者와 같이 長方形 靑華白磁이며, 규모도 똑 같다.

鄭昇은 鄭可宗의 一〇代孫으로 前者 鄭仕의 할아버지뻘이 된다. 鄭昇·仕의 家系를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鄭可宗—守弘(恭愍王)李朝 世宗)……八代 慄—九代 世規(一五八三

諱昭參奉郎松隱先生允眸之孫也恭人生丁康熙壬申卒于康熙辛亥四月十五日享年四十三合穴後配英陽南氏考諱倪祖廣嘑

兵曹佐郎權公諱大臨配淑人平海黃氏亥坐已向合窆(側面)

兵曹佐郎權公諱大臨字萬容墓誌

公諱大臨字萬容姓權氏在高麗初新羅宗姓金幸佐麗祖有功以爲達權之道賜是姓封太師食采安東是鼻祖歷十二世有諱景輔追封金紫光祿大夫檢校上將軍又三世諱伯宗嘉善大夫檢校漢城尹中樞院使以孝旋聞今安東府南門外雲興里即其遺墟也長子專重本朝諱景思贈領議政女爲○文宗大王妃誕瑞宗次子諱付眞寶縣監生諱自弘文館提學○瑞廟之遜也坐○里與六臣○命子諱○謫寧海娶府姓申氏仍居府西仁良里寧之有：缺：不○如線至左部將諱應商而兄弟有五郎世所謂寧○五○者是也部將公有五子而季曰宜快寔爲公祖亨號醉翁祖諱環有儒行與存齊李先生徽逸同被遺逸薦均後贈通善郎司憲府持平號臺隱先生享陶溪○考諱得興有高○舉進士除敬陵參奉○赴以詩酒自○號松川子有文集若干春○恭人安東金氏松隱先生諱光○之五世孫副護軍諱尚瓊之女也公以順治己亥九月十九日生于魚臺里容儀俊偉望之○然知其不可于以非義考方六七歲時祖姓金恭人拊其頂曰此兒有我家風知其必貴鍾愛異於他孫年二十

亥一

大臨生員文科兵曹佐郎縣監曰大有曰大根文科○事金氏出曰大規生員文科監察曰大拒曰大晋曰大成復與六男一女曰大觀生員大模曰大○曰大時曰大○曰大方朴○二男曰岐鳳朝鳳朴楚二男○相寅相孫鍵一男德升文科持平二女朱南正○內外曾出其麗累○嗚呼府君至行實學俱載於讓賢取讓偶文實錄故不敢贅府君墓十餘步白虎○孫大楷之墓青龍樓致十步即曾孫期齡妻趙氏及孫大成妻黃氏塚耐馬乾隆二十九年甲申十月日曾○縣監諱時說○嘉善大夫兵曹參判祖諱仁○議政府左贊成曾祖錫贈領議政妃貞夫人○孫氏朝○大夫諱祿慶之女生子萬曆丁酉十二月初八日梁嘉有婦行不以富貴有○色于夫家事舅姑系孝醉亭公屢稱者哉終于康熙辛亥七月初六日享年七十五窆于府君墓右石原而異封三男三女長曰德興次曰得興進士敬陵參奉次曰復興三女適朴嚴朴○

孫○德興三男一女曰大益大謙大縣：缺：長曰舜參奉○○○曰贈持平臺隱權公諱環配恭人安東金氏同原：孫：參：雙墳墓誌

亥坐

醉翁權公諱宜快妣孺人

盈德金氏同原上下墓誌

已向

之傳妣氏而○○而稔者何歟自府君卜土之後子○○葬有同河東柳氏之萬年厚局內不可盡記而芙同○則婚下茅二配金氏墓誌三○孫參奉墓茅四○家孫德興墓府君墓有○讓步即府君之○○之○金孺人之墓其下政步即曾孫……缺……德金公諱○之女也以萬○字進士公生有異：缺：兒時○有成人儀虔文○金先生：缺：之○事○敬兼至共○憂：缺：親均○之○家○循○○亭以○○先○○益諱環字景玉號臺隱姓權氏：缺：高麗太師諱辛佐祖以金……缺……使○○窆○○以爲……缺……景：缺：有：缺：付○○隱不○○子○○瑞廟之……缺……

大○○李氏○○也礪文門西不載故記于此乾隆二十九年甲申一月日支孫台齡謹誌

○宜：缺……

以遺策薦追贈○善郎司憲府○平十一○隋訟社：缺：女曰○○德興曰德興進士：缺：孫○德興雲○曰大益大○大府○○生員文科兵伏○○曰大有大拒：缺：曰大相○○文：缺：大：缺：憲復與與里曰大觀生員以文科○曰大揭曰大○曰大○○曰○○鳳朴○二之曰有文科○寅○○一子曰併升文○孫○○十二之未積○○之原如此愛：缺：者德興自存：缺：孫子○析○者有……缺……其同源：缺……

亥一

○○○公○宜○○○人英○金

府君諱宜快字士寬姓權氏其先安東人世居府南門外雲興里上祖高麗大師諱辛寬玆得姓之祖也中祖金紫光校大光諱景頭三世有諱伯宗以孝訟問嘉善大夫中樞院死檜機漢城尹二子長諱專領議政議景惠誕縣福后次諱付縣經是三諱自弘副提學錫廟之遜也與六臣兩朴子諱策○字海居于府之西仁良里安之有權姓比○械諱世平祖錫希彥者諱應高姓○阪朴氏參奉諱臺隱之女公主于萬曆己卯十一月二十六日天性惻愍不遷以詩酒玩世亭號謙翁語在石文卒享崇禎甲申三月二十日葬于廟魚○里魚臺玆中要祀○德金氏○士諱○之女生于萬曆甲申終于崇禎辛未六月十五日享年四十六同窆一異日環有儒行○○○追贈道善郎司憲



圖 3. 權大臨墓誌

府持平號○隱亭于陶
 溪社有三男曰德興曰
 ○○進士敬陵參奉曰
 復興三女適朴洪朴○
 孫姪德興○男曰大益
 曰大謙曰大頤參奉七
 男曰大○生員文科兵
 伏縣○曰大有大燭文
 科都○曰大○生員文
 科○窆曰大留大晉曰
 大成復興○男曰大○
 生員八文行○曰大棟
 大楷曰大○曰大○曰
 大方朴○二子曰峽○
 朝○○二子曰○相○
 相○○二子曰○○文
 科○平○○府君世德
 之遠○果

女二

○○○乾隆二十九年甲申十月日○○○○

曾祖諱仁祿妣平海黃氏諱中美之女郎大海先生諱應清義五恭人生于崇禎十一年卒于康熙壬寅十二月二十一日享年七十六葬于府南十五東畝谷三光泗玄坐○○○人俱有歸行茲宗所○道七男五女男曰大政生曰人文科佐郎縣監曰大有曰大惜文科都事出○女二○申夫嗣南金相金氏三男曰大祖生員文科司憲府監察曰大矩曰大晉出后曰女成三七通中樞朴滿卒伯○○重憲南氏出任郎二里松○栢齡三女適李時春張宗○○甫○大有三三期齡脩○出后追齡女二適○○朴龍○都黃二男夢齡監察一男燮齡三女適朴熙泰○守○孫○李大龍三男曰依齡耳齡之大成后○○○大方後女柳賁○大晉○子以脩齡爲后女朴應泓大成長子以耳齡爲后女無師龍晉○三男必齡渭齡洛齡女十一汝龍雲幼外孫○倍于可焄記其縣者曰進士曰漢雲曰侍郎南○○曰茲察朴斗相曰生員鄭一鋒嗚呼公以拔華之寸于遇一成之謝○終○○百○脩華五福具備詩之宜○○于高郎○○其出

四、朴成樑墓誌(圖 4)

이 墓誌는 구울 때 열도에 의해서 안으로 굽은 것인 지 압기와 형태로 凹이 심한 鐵書白磁이다. 이 墓誌의 크기는 세로 三三·cm, 가로 七·三·cm 두께 三·五·cm이며 현재 光州 東新中·高等學校 民俗室 所藏品이다. 墓誌銘은 鐵砂로 前面에 쓰여져 있는데, 左側一部가 缺失되어 있고 또 글자도 희미한 부분이 많다.

이 墓誌의 내용을 보면 通訓大夫(正三品堂下) 朴成樑의 墓誌로서, 朴成樑의 字는 樑之이며 忠州 黃澗人이다. 父는 北이고 母는 甄氏로서 弘治 庚戌(成宗 一二年 一四九〇年)에 태어나서 中宗 三三年(一五三三)에 四九才로 歿하였으며, 슬하에 三男을 두었다. 葬地는 完福里 白華山이다.

그는 武人으로서 武科에 급제(一五一六)하여 訓鍊院 奉事, 宣傳官 訓鍊院 簿判官, 都摠府 都事, 忠州判官(一五二四年), 訓鍊院 僉正(從四品)……軍資監 副正(從三品)……司饗院 提掌(正三品)을 거쳐 최후 벼슬

이 안州牧使에 이르렀다. 이 墓誌는 그가 歿한 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墓誌銘은 아래와 같다.

通訓大夫安州牧使公諱朴成樑字樑之忠州人居黃澗考北將仕郎妣甄氏籍黃澗儒人弘治庚戌三月十四日生取○護軍希哲之女男應福應德正德丙子中武科歷訓鍊院奉事參軍○遷宣傳官選訓鍊院簿判官遷都摠府都事甲申陰忠州判官五年而曹○庚寅復訓鍊院議未幾遷宣傳官事樞府都事選訓使僉正移都摠練歷甲午：缺：丙申調軍資副正轉監使副正○司憲院提掌安州牧使八月十八日以○終○官戊戌三月二日○○○院福里白華山震坐○葬之 誌石

五、金汝鎬墓誌(圖 5)

이 墓誌는 釜山大學校 博物館 所藏品으로서 四枚의 靑華白磁인데 크기는 세로 二〇·八cm, 가로 一五·二cm 두께 一·四cm 이고, 墓誌 末尾에 의하여 一七五六(英祖 三二年) 司憲院 直長(從七品) 金景澈이 分院에서 燔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墓誌는 通德郎⑦ 金汝鎬의 墓誌로서 字는 天固이며 義城金氏(始祖



圖 4. 朴成樑 墓誌

義城君 金子錫)의 後孫으로 父는 聲久(江原道 觀察使), 母는 永嘉權氏 英陵參奉 霖의 딸이다.

그는 一六七三(顯完 一四)년에 태어나서 一六九四年(肅宗 二〇)년에 二才로 夭折했다. 부인은 玉山張氏(山陰縣監 張鉉之의 딸)로 一六七四년에 태어나서 一七四三(英祖 一九)년에 七才로 歿하여 安東 北峴岬에 묻혔다. 그는 둘째 兄의 次男(金汝鎬의 조카)인 景澈(司憲院 直長)을 後嗣로 하였다.

이 墓誌는 養子인 景澈에 의해서 分院에서 燔造된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 本文 內容에 李光庭⑧의 哀悼하는 글도 보인다. 墓誌銘은 孫子인 井束이 썼으며, 그 年代는 英祖 三二年인 一七五六年이다.

墓誌銘은 아래와 같다.

(第一共四)

有朝鮮國通德郎金公墓誌

祖考通德郎府君諱汝鎬字天固新羅敬順王子錫封義城君子孫遂爲義城人高麗時有諱龍庇金紫光祿大夫太子詹事有功德於民邑人祀之四世至諱用超佐我太祖開國官湖南兵馬使後六世而至諱希參蜚英館閣佐銓天曹卒官三陟府使贈吏曹判書以季子東岡公字顯原從功也操履學行取重士林號七奉享于鄉賢五代祖諱宇宏歷翰苑中書三司官至副提學文章德行爲世推許世稱開巖先生享之院嗣高祖諱得可昌寧縣監 贈司僕

(第二共四)

寺正曾祖諱璉進士用優老息授副護軍 贈左承旨祖諱秋吉生員以仲子監司公經侍從初授通政繼加嘉善後 贈吏曹參判號鶴汀三世地 贈皆以監司公貴考諱聲久歷踐三司官至江原道觀察使清標雅操爲一時冠冕號八吾軒享之里社妣貞夫人永嘉權氏左贊成諡忠定公冲齋先生諱機五代孫 英陵參奉諱霖之女以崇禎後三十年癸丑十二月二十七日生府君容貌○秀舉止端重性於孝友篤於倫理監司公奇愛之內舅荷塘權公亦以遠大期之癸酉舉鄉解病不赴省試明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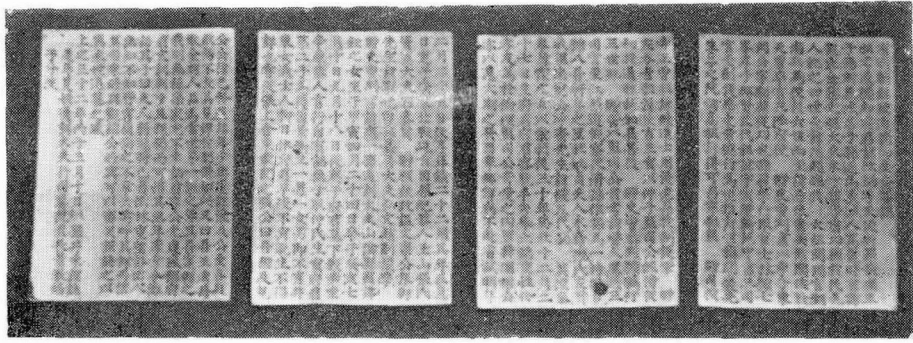


圖 5. 金汝鉞墓誌

(第三共四)

二月二十五日沒享年纔二十二用其年五月日窆于安東北鞍峴首酋原配恭人玉山張氏資憲大夫右參贊 贈領議政諡文康公旅軒先生諱顯光曾孫嘉善大夫弘文館副提學 贈吏曹判書諱應二孫通訓大夫山陰縣監諱鉞之女生于甲寅四月二十四日卒于癸亥七月十日九月十八日從蔡于府君墓下數步坐辛原恭人言行自有誌無子取仲氏生員府君弟二子爲後諱景澈生一男一女男即不肖井東女適士人柳日休府君早沒不肖晚生不得詳也嘗從張上舍東載問之張公曰吾猶及見

(第四共四)

公公律已矜莊諸年少群處謔浪及公至各自斂節不放其見憚於朋脩如此又曰吾王考每歎金甥人品爲當世弟一假之年其吾寔賴之我則無祿渠家尤不幸訥翁李公光庭盛稱府君文詞朝夕且釋褐而可惜其無年李掌令語其子曰夫人弱冠時已負儒林重望詎出人無知不知皆言嶺南之不幸云嗚呼其詳而信莫若衆所與觀諸公所與可代審矣謹誌之以寓永世追慕之感上之三十二年丙子三月十日庚戌

孫井東謹誌

是年夏姪通訓大夫行司憲院直長景澈燔于分院

六、洪大胤墓誌(圖 6)

이 墓誌는 釜山大學校 博物館 所藏品으로 사발과 같은 圓筒形 鐵畫白磁로서 參判 南陽洪氏 大胤의 墓誌이며, 만들어진 年代는 末尾에 崇禎 紀元後四戊辰五月日 이란 글로 보아 純祖 八年(一八〇八年)임을 알 수 있다.

墓誌銘 全文을 入手할 수 없어 洪大胤의 家系, 生歿年代 등에 대해서 는 밝힐 수 없으며, 우선 一資料로 소개해 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墓誌는 사발형태 四개를 포개어 안팎으로 백백히 글씨를 써 놓았는데, 이런 類의 在銘 圓筒形 白磁墓誌로는 仁川博物館 所藏의 安宗茂墓誌(英祖 三七年, 一七六一年) 例⑨가 보인다.

七、貞敬夫人恩津宋氏墓誌(圖 7)

이 墓誌는 서울大學校 博物館 所藏品으로 長方形 粘板岩製를 이용하여 陰刻으로 새겨 놓았는데, 그 크기는 세로 三〇·二cm, 가로 二二·九cm, 두께 三·五cm이다.

墓誌銘의 內容을 보면 夫人은 牧使 宋時淵의 딸로서 英祖 丙申年(一七七六年)에 태어나서 純祖 甲午年(一八三四年) 五八才로 歿했는데, 葬地는 坡州로 되어 있다. 夫人은 宋堯佐의 曾孫 文元公 宋明欽⑩의 孫으로서 安東金氏 履綏의 外孫인 豐壤趙氏 萬永⑪에게 시집갔는데, 墓誌銘을 쓸 당시의 남편의 벼슬은 戶曹判書이었다.

夫君되는 趙萬永의 家系는 景獻公 尙綱(吏曹判書) — 文翁公 囁 — 孝文公 鎮寬(宋夫人의 시아버지)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孝明世子 翼宗(純祖 九년 一八〇九~純祖 三〇年, 一八三〇)은 一八一九年 趙萬永和 宋夫人 사이에서 난 딸을 簡擇하여 嘉禮를 올렸기 때문에 宋夫人은 孝明世子の 丈母가 되며, 동시에 憲宗의 外祖母가 된다. 따라서 外名婦에 府夫人이나 王妃母 奉保夫人에 해당하는 貞敬夫人(正一品 또는 從一品) 宋氏는 이런 王 外戚의 背景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宋夫人의 誌石은 純祖의 첫딸인 明溫公主의 墓誌와 같은 材料 規模이며, 明溫公主의 남편되는 東寧尉 金賢根의 墓誌는 靑華白磁인 점으로 ⑫ 보아 石製 墓誌를 사용하는 것은 品階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었던 것 같다.

墓誌銘은 다음과 같다.

朝鮮貞敬夫人恩津宋氏牧使時
淵女贊善文元公明欽孫郡守堯
佐曾孫安東金履緩外孫夫豐壤
趙萬永今戶判父孝文公鎮寬祖
文翼公職曾祖景獻公尙綱俱吏
判英祖宗丙申十月二十六日生
甲午七月十四日卒葬坡州墓谷
良坐原男秉龜前大司成秉夔出
后女長孝明世子嬪誼王世孫次
李寅高俞致善進士金奩銘

八、德水李氏墓誌(圖 8)

이 墓誌는 全南大學校 博物館所藏品으로 三枚의 長方形 靑華白磁인데, 그 크기는 세

로 一九cm, 가로 一六·五cm, 두께 一·五cm이다.

主人公인 淑人 ⑬李氏의 本貫은 德水로서 李亨彬의 딸이며, 正祖 四年(二七八十年)에 태어나서 純祖 一年(二八〇一年) 二才에 시집갔는데 夫君은 光山金氏 箕憲으로 牧使를 지냈던 것 같다. 따라서 淑人이란 外名婦의 品階를 얻은 모양이다.

그리고 哲宗 三年(一八五二年)에 七才로 歿하였으며, 葬地는 坡州로 되어있다. 따라서 墓誌의 製作年代도 一八五二年 頃이 되겠다.

墓誌銘은 아래와 같다.

(第一共三)

淑人李氏系出德水考諱亨彬妣順天金氏諱復祖女祖諱洵曾祖諱元鎮 正宗庚子八月一日生辛酉歸于光山金公諱箕憲官牧使墓連山壽樂洞壬坐原考諱相說 牧使祖諱仁澤曾祖諱鎮泰佐郎七世祖文元公諱長生以道

(第二共三)

學爲世師宗今上壬子六月二十七日卒八月十八日葬于坡州古寧癸坐原前配閔氏生三女朴宗學左尹洪英燮趙秉素長子在敬入后牧使淑人生三子在命在清承 旨在弘縣令在敬子胄鉉奉事胤鉉出后縣令膺鉉出后女

(第三共三)

李熙夏尹定善翰林朴順陽都事在命子昌鉉女趙縉鎬參奉朴勝文趙秉益在清系子膺鉉女 順和宮郎 憲宗敬嬪在弘二子一女幼朴宗學系子慶壽洪英燮子在 愚直長女尹栲吳致胄趙秉素子夔熙女黃處仁胄鉉子永耆

九、〇熙豐子の 墓誌(圖 9)

이 墓誌는 長方形 卍字형으로 凹凸에 해당하는 二枚가 있었던 모양이다. 현재 凹의 一枚만 남아 있는데, 그 크기는 가로 一三·五cm, 세로 三



圖 6. 洪大胤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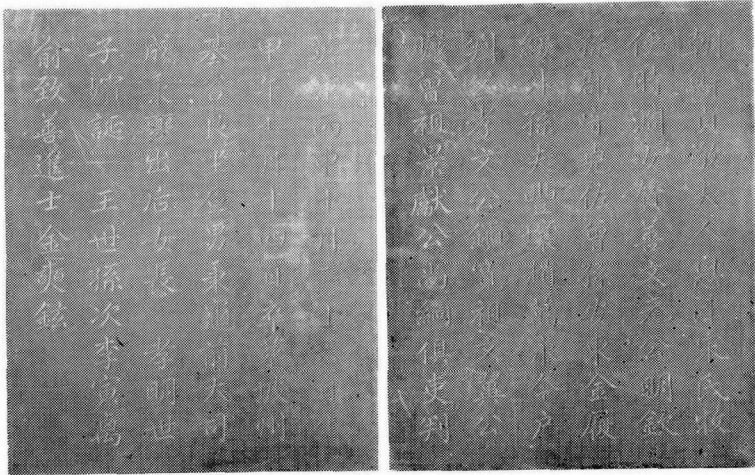


圖 7. 貞敬夫人 恩津宋氏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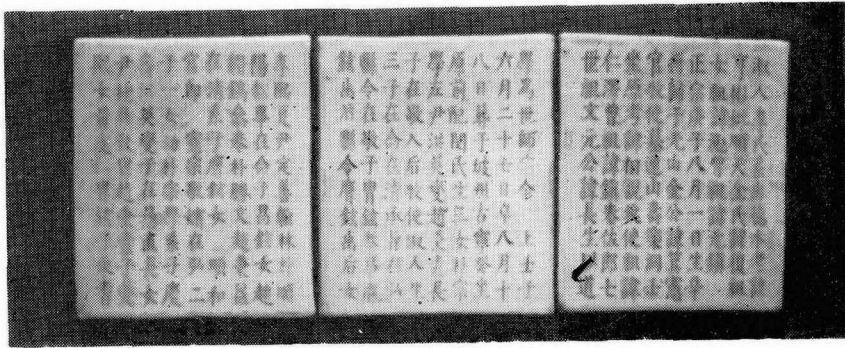


圖 8. 德水李氏墓誌

四·四 cm, 두께 三·五 cm 이며, 石質은 烏石이다.

本文의 內容을 보면 高在傑의 墓誌¹⁴처럼 벼루의 뚜껑에 해당하는 곳에 썼는지 被葬者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主人公은 高麗 舍人¹⁵○蔣의 十五代孫으로 正祖 一八年(一七九四年) 生이고, 歿한 年代는 哲宗 七年(一八五六年)에 六三才로 일기를 마쳤다.

그리고 葬地는 臨陂縣(現 全北 沃溝) 安興으로 高宗 四年(一八六七年) 死後 一二年에 墓誌가 만들어진 것 같다.

父는 ○大文 生父 ○熙豐 夫人은 兆陽 林宜煥의 딸로서 슬하에는 長子 膺鍾과 次子 膺鍊은 동생 天珪의 아들로서 養子를 삼은 것 같고, 三子인 膺鍵과 딸, 長孫 海胄가 있다
總誌銘은 다음과 같다.

高麗舍人諱蔣十五代孫 正宗十八年甲寅三月二十八日生 哲宗 七年丙辰七月二十一日卒享年六十三 當于四年同治六年丁卯 九月十一日自臨陂縣內安興後麓緬禮于同縣北一興玉後麓父諱 大丈夫生父緯熙豐配兆陽林氏將仕郎諱宜煥之女長子膺鍾次子膺 鍊出系于公之弟天珪三子膺鍵女林度慎滄尾人長孫海胄

以上 紹介한 十例의 墓誌를 綜合하여 整理해 보면 다음 分析表로 要略될 수 있겠다.

(註)

- ① 崔夢龍, 「全南地方所在의 李朝墓誌(古文化 一五輯, 一九七七, 五, pp. 一九~三四) 및 「李朝墓誌 數例(考古美術 一一九, 一三〇合輯, 一九七六, 六, pp. 二〇四~二二〇)·이 조
- 그마한 글로써 水墨 秦弘燮 教授님의 華甲을 맞아, 平素에 입 어온 깊은 厚德에 대한 感謝와 仰慕의 念을 조금이나마 표하 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서울대 및 釜山大 博物館所藏資

李朝 墓誌 分析表

	墓誌主人公	本 貫	職 位	形 態	質	規模(단위 : cm)	製 作 年 代	枚數	出土地	所 藏 處
1	閔 天 瑞	麗 興		長方形	鐵畫白磁	17.6×12.6×3 17.2×11.9×2.5	1668年(顯宗9年)	2	和順	全南大 博物館
2	鄭 仕	東 萊	學 生	長方形	青華白磁	16×10.9×2.5	18.19 世紀頃	2	金堤	全南大 博物館
3	鄭 昇	東 萊	錄 事 (追贈吏曹判書)	長方形	青華白磁	16×0.9×2.5	18.19 世紀頃	1	金堤	全南大 博物館
4	權 大 臨	安 東	兵曹佐郎 (正五品)	長方形	鐵畫白磁	21.9×15.6×1.9	1764年(英祖40年)	10	安東	光州 東新高 民俗室
5	朴 成 樑	忠 州	通訓大夫 (正三品堂下)	長方形	鐵畫白磁	32×17.3×3.5	1538年(中宗33年)	1	橫澗	光州 東新高 民俗室
6	金 汝 鎬	義 城	通 德 郎 (正五品)	長方形	青華白磁	20.8×15.2×1.4	1756年(英祖32年)	4	安東	釜山大 博物館
7	洪 大 胤	南 陽	參 判 (從二品)	圓筒形	鐵畫白磁	口緣 7.5~8.5 低徑 14~18 高 15~17.5	1808年(純祖8年)	4	裡里	釜山大 博物館
8	思津宋氏	思 津	貞敬夫人 (正從一品)	長方形	粘 板 岩	30.2×23.9×3.5	1834年(純祖34年)	2	坡州	서울大 博物館
9	德水李氏	德 水	淑 人 (正從三品)	長方形	青華白磁	16.5×19×1.5	1852年(哲宗3年)	3	坡州	全南大 博物館
10	未 詳 (熙豐斗)			長方形 (비루형)	粘 板 岩	34.4×23.5×3.5	1867年(高宗4年)	1	沃溝	光州 東新高 民俗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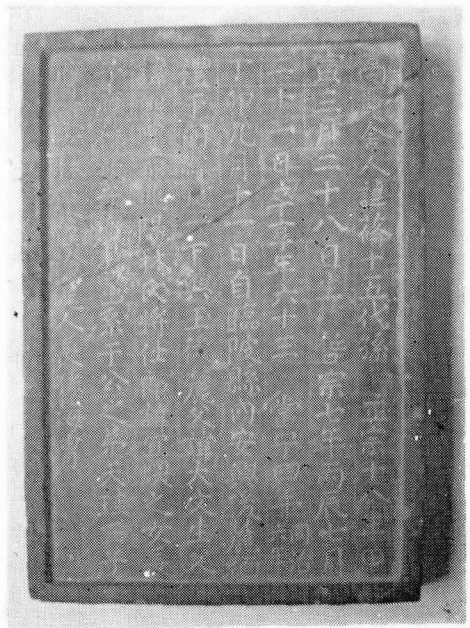


圖 9. ○熙豐子の 墓誌

料도 함께 취급하였는데, 이는 尹德香(서훈), 鄭澄元(漢城女大), 任孝澤(釜山大)氏의 厚意에 依한 것이다. 이 세 분에게 感謝를 表한다.

② 朝鮮王朝 때 藝文館의 正九品 벼슬로서 定員은 四名이었는데, 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아 보았다. 通鑑·左傳·諸史 등에서 講을 시켜 合格한 者를 임명하였으며, 史臣이라고도 한다. (韓國大百科事典 ①, 乙酉文化社, 一九七二. p. 一四七 참조)

③ 이 墓誌의 製作年代인 一六六八年은 墓誌의 本文에 보이는 戊申으로부터 추측된 것인데, 閔天瑞가 죽은 一五九八年以後의 戊申의 干支를 갖는 年代에 一六〇八年과 一六六八年이 있는데, 이 墓誌를 記錄한 閔汝老가 當時 綾州牧使로 在職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戊申은 綾州가 牧으로 昇格한 一六三二年(仁祖 一〇年)以後의 一六六八年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④ 鄭世規(宣祖 一六年. 一五八三~顯宗 二年, 一六六一)의 字는 君則, 號는 東里로서 樸의 아들이다. 一六一三年 光海君 五年) 司馬試에 合格하여 蔭補로 義禁府 都事에 當選된 이후로 和順縣監 仁祖 六年 安山郡守, 公忠道觀察使(一六三六年) 朝鮮王朝 歷代 相臣·監司 一覽에 의하면 忠淸監司, 戶曹參議 全羅道觀察使(一六四一年), 工曹判書(一六四四年)를 거쳐 최후의 벼슬이 史曹判書(孝宗 六年)에 이르렀다. (韓國人名大辭典 新丘文化社, 一九六七, p. 八三一)

⑤ 錄事는 朝鮮王朝 때에 東西兩班의 各 官아에 속했던 從六品에 해당하는 下級 吏屬의 직명이다.

⑥ 權大臨은 權得興의 長子로서 一六五九(己亥, 孝宗 一〇年)에 나서, 肅宗 朝 때 縣監을 지냈다. (國朝榜目, (韓國學大百科事典 ③ 所收, 一九七二, P. 三二三)

⑦ 通德郎은 朝鮮王朝 品階表에 의하면 東班(文班) 正五品의 벼슬에 해당한다.

⑧ 李光庭은 一五五二(明宗 七年)~一六二七(仁宗 五年) 때 文臣으로, 字는 德輝, 號는 海阜·訥翁이며, 本貫은 延安이다. 그는 一六二六(仁祖 四年)에 開城府 留守가 되었다가 이듬해 丁卯胡亂 때 江華에 들어가 病死하였다. 宣祖 때 清白吏에 錄選되었다.

⑨ 鄭良謨, 「安宗茂의 白磁墓誌」(考古美術 四卷 二號 一九六三, 一, pp. 一五~二二)

⑩ 宋明欽(一七〇五, 肅宗 三一年)~一七六八, 英祖 四四)의 字는 晦可, 號는 樸泉, 本貫은 恩津으로 浚吉의 後孫이며 堯佐의 子이다. 一七六四年(英祖 四〇年) 贊善으로 經筵官이 되어 政治問題를 論하다 英祖의 非위에 거슬려 파직되었으나, 死後에 後官되어 吏曹判書에 追贈되었다. 諡號는 文元이다.

⑪ 趙萬永(一七七六, 正祖 卅一)~一八四六, 憲宗 二二年)의 字는 胤卿, 號는 石崖, 本貫은 豐壤으로 吏曹判書 鎮寬의 子이다. 生前에는 요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死後에 領議政에 追贈되었고, 諡號는 忠敬이다.

⑫ 崔夢龍, 「全南地方所在의 李朝墓誌」, (古文化 一五輯, 一九七七, 五, p. 二二~二五)

⑬ 淑人是 朝鮮王朝 品階表의 外命婦에 의하면 正三品이나 從三品에 해당하는 벼슬의 婦人에 붙여준 명칭이다.

⑭ 崔夢龍, 「李朝墓誌 數例」, (考古美術 一, 二九, 一三〇 合併號, 一九七六, 六, p. 二〇五)

⑮ 舍人은 高麗時代의 品階로서 소속된 官階와 時代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正四品에서 從六品에 해당하며 內議舍人·中書舍人·都僉議舍人·內書舍人 門下舍人·起居舍人 등이 있다. (全南大學校 助教授)